

안호영 “지도부 이원택 방패역할 멈춰야”

“금요일에야 처음 당 조사 받아”
전북 청년 두 명 증언 공개
“감찰 부실·성급…재감찰해야”
재조사 촉구 단식 10일째 압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등’과 관련, “이원택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판단이 성급하고 부실했다. 지도부는 공정한 재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식 10일째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감찰단이 충분한 조사와 확인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 경선이 그대로 강행된 점이 핵심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토요일 국회를 찾아와 증언한 전북의 두 청년이 그 전날인 금요일에야 처음으로 당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판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님게 과연 공정한 감찰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안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청년들의 증언은 분명하고도 일관됐다”며 “증언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는 해당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고,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했으며, 식사 자리



“부실·성급 감찰” 직격 지도부에 재감찰 촉구
20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원택 후보 관련 의혹 재감찰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타임스>

에서는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원택 후보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 “(식사)해당 자리가 사전에 ‘청년 간담회’로 안내된 적이 없었다”면서 “청년들이 인식한 자리는 간담회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자리였는데도,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원택 후보측의 정치공세’를 지적에 대해서 “조작설과 배후설 제기”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한 청

년들을 흔들고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공격”이라면서 “진실을 말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안호영이 앞에서 막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조사”라면서 “청년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듣고, 확인하고, 책임 있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거듭 재조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경찰을 향해 “식사비 대납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신속하

고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의혹이 이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객관적 증거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청년이 상처받지 않는 정치, 진실이 외면당하지 않는 전북,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민주당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단식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국회 협력 강화 2027 예산 확보 나서

국회와 정책간담회·지역 현안논의
새만금·현대차 투자 등 현안 점검
산재병원·의진원 설립 등 협력 요청
SOC·올림픽 등 주요 사업 반영 추진

전북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와의 협력 체계를 다지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전북도 관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7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현황 ▲현대자동차 업무협약 관련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지원 ▲새만금 헬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 등 도정 핵심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새만금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조기 완성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투

자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됐다.

산재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의 실현도 촉구했다. 헬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만금 헬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점검했다.

고속도로·국가철도망·광역교통시설·국도·국지도 등 주요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도 보고하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며 국회의 유익적인 공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정수 증원 환영” 44명 체제 출범

군산·익산 각 1명, 비례 2명 확대
“지역 정치적 불균형 해소 전환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장 문승우)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수 증원(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에 대한 환영 입장 발표와 함께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총 44명 의원으로 구성된다.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증한 자치입법수요에 대응하고 타지역과 비교해

겪어온 정치적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원 정수 증원에 대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 추진을 위한 분야별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40석에서 4석이 증원된 만큼 법무·의사, 시설·장비,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 분야별 핵심 대응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 법규 개정 및 상임위 재편 ▲인프라 및 전산 구축 ▲정책 지원 및 행정인력 확충 ▲의정 활동 경비 및 장비 확보 등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각 부서별로 마련한 대응

과제와 세부 사항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좀 더 확대되었다”며 “늘어난 정수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북의 특수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의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정수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장정철 기자

김 총리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조성” 구상 밝혀

현대차 투자 맞물려 ‘가속’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 메가특구를 언급,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협약과 맞물린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의 도약에 기대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새만금위원회, 전북도, 현대차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연계, 새만금을 ‘메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무인차, 로봇 등 다양

한 형태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합리화하는 메가특구를 해야 한다”며 “최초의 실험을 새만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낙후했던 지역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AI, 자동차,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결합되는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하는 국토 대전환의 첫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전북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전북을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강연에서 전북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있어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신산업을 통한 전북 경제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새만금 ▲피지컬AI ▲그린바이오 세 분야를 제시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에 대한 규제 제도와 첨단산업 실증을 골자로 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구상이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개별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www.sgcenergy.co.kr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뤄가겠습니다.

SGC 이태크건설 SGC 송우선 SGC 그린파워 SGC 다열발전 SGC 퍼티너스

도 농촌공감여행 경비 지원...관광·소득 '두 마리 토끼'

체험 최대30%·숙박 최대50% 할인
4월~11월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참참' 통해 신청
도시민 쉽·농촌 활력 동시 제고

'농촌공감여행'은 도시민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과 숙박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 대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특히 여행 성수기에도 주중(월~목 입실 기준) 숙박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2만 806명의 관광객이 참여해 약 4억6,000만 원의 소비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북도는 도시민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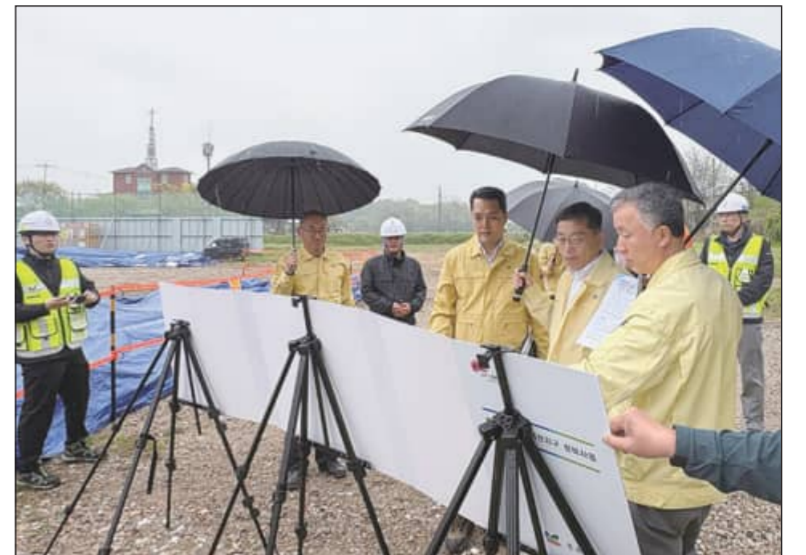
올해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온라인 플랫폼 '참참'(www.chamchamtrip.com)을 통해 회원가입 후 쿠폰을 발급받아 예약·결제하면 되며, 여행 후 후기 작성까지 완료해야 지원이 인정된다.

민선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공감여행은 전북 농촌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시민에게는 일상 속 쉼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혜택은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

/장정철 기자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월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 생활밀착시설 안전망 강화...집중점검 돌입

도내 1,449개 생활밀착시설 점검
교량·어린이집 등 55개 유형 대상
민관합동·첨단장비 정밀 진단
주민신청제 운영·자율점검표 배포

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량, 어린이집,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숙박시설, 국가유산, 어린이놀이시설, 공장시설 등으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밀접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도 병행한다.

있으며,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생활 속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61일 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첫날에는 행정안전부와 의 영상 회의에 이어,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점검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가점과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 사례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55개 시설 유형, 총 1,449개

이와 함께 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도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장정철 기자

이원택 "더 이상 정치공세는 낭비와 분열"

정읍 식당 의혹 쟁점 정면 반박
"식사비·모임 의혹 사실 아냐"
결재 관여 부인 "사전 인지 못해"



이원택 후보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식사비 실제 결제 주체'와 관련 "해당 식사 자리의 결제 과정에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저와 수행 인력의 식사비는 별도로 처리되었으며, 전체 식사비 결제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제안을 통해 마련된 자리로, 저는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조직된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후보는 지난 19일 안호영 의원과 일부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정읍 식당 모임'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최근 최근 일부 주장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히

그러면서 "제3자 대남"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대 해석된 주장"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명될 사안이며, 필요한 모든 자료와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액 간담회 여부 및 선거 운동 성격'에 대해서 "해당 자리는 청년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며 "저는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의 대화를 나눴을 뿐, 특정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근 최근 일부 주장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히

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또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참석자와 제3자 목격자들은 정책, 문화·예술, 지역 문제 등에 대한 대화가

이후 "최근 최근 일부 주장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히

전북도, 전주시 월평 재해위험지구 현장 점검

호우대비우기전공정 점검 강화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 전방 확인

는 중장기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우수지와 배수펌프장 조성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20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일원 '월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 관리뿐 아니라 설계·발주·보상·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해예방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6.15~10.15)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점검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후 이상으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사업인 만큼,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해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전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해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설계, 발주, 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추진 상황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의 진행 여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은지 기자

월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송천동 2가 일대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되며, 고지배수소 2.3km와 우수지,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가 핵심이다. 사업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거운동 자리'라는 규정과 명백히 배치되고, 체류 시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일정상 먼저 나왔으며, 끝까지 머물렀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러운 일"이라며 "CCTV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또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참석자와 제3자 목격자들은 정책, 문화·예술, 지역 문제 등에 대한 대화가

이밖에 이 후보는 재검찰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를 재검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상대후보 측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몇몇을 조사한 것이지 후보자 결정의 반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검찰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목기자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 보호 구역
6. 횡단보도
7. 인도



전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만전'

지원금 전담 TF 구성 선불카드 등 사전 준비 철저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사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선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장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속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비 여건을 제공하고, 역대 소비 순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는 민생에 힘이 되는 지원대책이다.

시는 신속한 준비와 탄탄한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 먼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5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이어 2차 피해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정리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기 미신청자의 경우 2차 지급 시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중동 전장 여파 회복에 신속히 사용되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앞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전주시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전주시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청 초기 물림에 따른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차 및 2차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앞서 시는 원활한 피해지원금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사업 총괄 △현장 지원 △홍보·전산 지원의 3개반의 전담 대응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 왔다.

동시에 오프라인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35개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인력과 전산장비 구축 등을 보강하고, 선불카드 확보 및 대상자의 정확한 추출 등을 거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도 이날 직접 평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공연

전주시립교향악단 'SHALL WE DANCE' 선보여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전주국제영화제에 기념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기획공연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기념 음악회인 'SHALL WE DANCE'를 선보인다.

공연은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기념해 영화에 사용된 다양한 춤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선보여 시민과 관객에게 새로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적 감성과 무용의 리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셸 위 댄스(Shall We Dance)'를 부제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춤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영화 속 장면과 함께 기억되는 음악을 생생한 연주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아람 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으로, 우아한 왈츠와 극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무도회의 화려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어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와 샤를-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가 연주되며, 각각의 개성 있는 리듬과 강렬한 표현력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2부에서는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플로베츠인의 춤'과 샤를 구노의 오페라 '피우스트' 중 발레 음악이 연주된다.

이들 작품은 화려한 군무와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무용음악으로,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통해 깊은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백진현 상임지휘자가 객원지휘를 맡아 완성도를 높이며, 세계적인 피커셔니스트 심선민이 협연자로 참여한 연주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아람 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으로

/정소민 기자

자임추모공원, 멈췄던 추모의 길 다시 열려

20일부터 정상 개방 유가족 자유롭게 추모 가능 개방 맞춰 행정 역량 집중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간 폐쇄됐던 전주시 자임추모공원이 정상 개방되면서 유족들의 오랜 고통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자임추모공원이 정상 개방되면서 안치된 유골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

족들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임추모공원은 2024년 6월 촉발된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의 소유권·운영권 갈등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이후 유족들은 상여 행차와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 및 관련 업체간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임추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다.

시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유골함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를 통해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설 안전 대책을 강화하

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개방으로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민생 안정'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저소득층 임차료 주택 개보수 지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도모

전주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임차료 지원 △주택 개보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311만7474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거주에는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4인 가구 기준 32만9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거주에는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1601만 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또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

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계약금은 본인에 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대상은 전주지역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이다. 시는 이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원(최대 3%)까지 지원

한다.

동시에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7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았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영구임대주택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긴급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연계해 주거 상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맞춤형 주거 상담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5호 운영 △주거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선을 지원하는 '주거편의 사업(가구당 1년 5회, 20만 원 제한)'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순집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가구당 380만원 한도)'도 추진한다.

이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연탄쿠폰'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 설치·교체와 단열 창호 시공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금은방 범죄예방 종합대책 추진

금은방 등급별 순찰 체계 지정

치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 취약 지역과 업소를 한눈에 파악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분류된 등급에 따라 순찰 강화 기간과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순찰 정밀도 체계도를 높여 지역 경찰·광역예방순찰대·경찰기동대·형사 등 빈틈없는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구축된 '경찰-금은방 네트워크'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최신 절도 사례와 고도화된 범죄 유형, 수법 등을 업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민·경 협력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민생치안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금은방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경찰은 관내 금은방의 CCTV 설치 현황, 시설경비 가입 여부, 출입문 개폐장치 등 방범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 범죄 발생과 신고 이력, 방범 시설 수준, 근무자 현황, 지역 관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은방별 관리등급을 분류한다. 특히 등급 분류된 데이터는 Pre-CAS(범죄예방분석시스템) 등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거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전주시는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중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28개 학교 청소년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 중이다.

교육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전주인봉초등학교와 용덕초등학교 학생 13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 소속 강사가 초청돼 '인구변화가 주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해 △인구 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예측 및 향후 진로

선택과의 관계 △미래사회 대응 전략 설계 △가족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이다.

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교육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청년과 성인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향군 여성회, 봄날과 함께 고고고 캠페인

전주시제향군인회(회장 김범준) 여성회(회장 강경숙)는 지난 20일 중앙회·도회여성회의 '고고고' 행사 계획에 맞춰 덕진공원 일대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날과 함께 GO!GO!GO!' 캠페인을 열었다.

행사는 "향군 캠페인 GO!GO!GO!(가꾸 GO·나누 GO·기억하 GO)"의 일환으로 향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공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노후·불량 소방용품' 관리 안내

오는 7월 1일일부터 도내 주요 소방용품 등에 대한 새로운 점검·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화재 시 소방용품은 초기 대응과 인명피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는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용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이다.

/정소민 기자

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과 기능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관계인은 평소 자체점검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연월과 형식승인 표시 등을 확인해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살피고, 외관 손상이나 변형, 누수, 감지 이상 등 기능 저하 징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권장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나 노후화가 우려되는 소방용품은 최근 교체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도소방본부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와 홍보자료 제공, 관계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에너지산업 유망 기업 찾는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및 기관을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시 새만금 산단 2공구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핵심 허브이다.

센터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4년 7월 개소한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5층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에너지 산업 간 연계성,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집중 유치해 기업 간 협력과 시너지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주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M70(연구개발업) △M72(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에너지 및 연관 산업 분야 기업·기관이다.

입주 희망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입주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시 최대 7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새만금 2공구는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밀집된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히 올해 안공 예정인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지원센터 입주와 관련된 상세한 모집 공고 및 신청 양식은 전북테크노

<사진=전북테크노파크>

파크 에너지산업진흥팀 또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고향주부모임, 염색봉사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소속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관내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머리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민기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바쁜 일상과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외모를 가꾸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로효친의 가

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염색해 드렸으며, 대기 시간 동안에는 말뚝무가 돼 안부를 묻고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등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우광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식량원-농관원 '벼 품종 판별 협력 강화'

고품질 쌀 유통 질서 확립... 기술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장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22일 본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함께 고품질 쌀 품종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벼 품종 판별 연구 협회'를 개회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 연구(워크숍) 개최와 연구 정보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의 품종 판별 기술 활용성을 높여 왔다.

특히 신품종 개발 단계부터 유전정보를 공유해 품종 판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와 농관원 시험연구소 원산

지검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협력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신품종 종자 및 유전 정보 공유, 품종 판별 지침(매뉴얼) 개정, 판별 기술의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품종 육성 내역과 유전정보를 제공하고, 농관원은 이를 기반으로 품종 판별 체계를 보완해 신품종이 유통 현장에 도입되는 즉시 정밀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농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구매 시 품종명을 확인하는 소비자 비율이 2021년 12.3%에서 2024년 16.4%로 증가하는 등 품종 중심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일 품종 쌀 유통을 장려하고 품종별 특성을



강조하는 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품종 판별 기술의 정밀도와 현장 활용성을 높여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사진=농촌진흥청>

로써 고품질 쌀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올해 20개 시·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20일 시작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시장가격 하락 등 보험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대비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2026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의한 수확량 감소 보상을 넘어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하며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벼에 대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해 총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봄베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고 봄감자·고구마·옥수수 등은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김영태 기자

기업사랑 도민회 제2차 포럼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6일 회원들의 건강한 삶 증진 위한 건강관련 포럼을 실시했다.

포럼은 대한생활건강증진협회 김백연 박사가 강사로 나와 일상생활에서 부상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관리와 운동, 관절관리, 명상 등 중년

과 노년에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생활습관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윤방섭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평소 생활습관이 나 운동 방법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기술 중심 관리방식 선도... 전국 확산 기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 무단 점용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국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 기반 조

사·분석 기술을 활용해 추진됐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간정보 기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드론 및 지적정보 연계 등을 통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확인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회성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최초로 경산시와 손잡고 착수한 이번 실태조사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확산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인력 위주의 기존 실태조사 방식에서 기술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41:1 경쟁률 기록

총 206개 프로젝트팀 신청...최대 2백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이하 생태계혁신형 DCP) 공모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

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도전하며, 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 원 이상 선투자자와 연계해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이하 R&D)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다.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됐다.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

에 부응해,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순 발표평가를 넘어 '심층토론행 평가'를 도입한다.

대면평가 시 30분 내외의 제한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생태계 혁신의 파급효과가 큰 '빅 프로젝트' 임신을 위해 1차(서면) → 2차(대면: 열린 평가) → 예비연구 → 최종

선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팀에는 4개월 간 상세 R&D 수행계획 구체화, 핵심 기술의 성능검증 및 협력체계 구축 등 R&D 기획을 지원하는 예비연구단계를 부여하고, 이후 경쟁을 거쳐 최종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생태계혁신형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재기획 단계를 거쳐 기술도전형 DCP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대 공적연금의 경우 첫 입금 시 3천원, 이후 3회 연속 입금 시 추가 7천원

/정소민 기자

내연금골든체인지 이벤트

연금수령계좌 변경하면 **최대 1만 5천원!**

2026. 4. 20(월) ~ 6. 30(화)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내 연금 골든체인지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연금수령계좌 변경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내 연금 골든체인지 이벤트'를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연금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타 금융기관에서 5대 연금을 수령 중인 개인 고객이 모바일 앱 '쓱뱅크'를 통해 연금수령계좌를 전북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연금이 입금된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연금 종류에 따라 제공된다. 4대 공적연금의 경우 첫 입금 시 3천원, 이후 3회 연속 입금 시 추가 7천원

을 지급해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첫 입금 시 2천원, 이후 3회 연속 입금 시 추가 3천원을 지급해 최대 5천원까지 지급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고객은 조건 충족 시 두 혜택을 합산해 최대 1만5천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이 간단하다.

고객은 쓱뱅크 로그인 후 '연금수령계좌 변경 서비스'를 통해 현재 타 금융기관에서 수령 중인 연금을 선택하고 전북은행 계좌를 지정하면 된다.

이후 연금이 정상 입금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캐시백은 조건 충족 다음 달 지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CBT 평가... 의견 엇갈려

올해 100개교 확대... 교육 당국 "업무 경감" 일선 교사 "평가권 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7월 초등학교 6학년 총괄평가가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스템 도입을 100개교 규모로 확대 추진을 계획하면서 교육 당국과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49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스템

을 활용한 CBT 평가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희망 학교 100곳 내외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문항을 제공해 CBT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교사들의 과도한 평가 출제 업무를 덜어주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시범 운영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평가 업무 부담 경감'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69%가 '전반적인 업무 경감'을, 60%가 '수업 개선 활용 가능성'에 만족을 표했다.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에 맞춰 평가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객관적인 학생 수준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선 교사들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CBT 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교사의 고유한 평가권 침해를 우려한다.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수학 교과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수식을 쓰고 풀이 과정을 전개해야 하는데, 공책에 따로 문제를 풀고 컴퓨터에는 정답만 입력하는 반쪽짜리 시험이 과연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교육청의 일괄 문항 제공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내가 가르친 내용을 교실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교육청이 내려보낸 일괄 문항을 쓰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학급의 실제 수업 진도나 난이도와 맞지 않는 문제가 출제돼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현장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 '5월 바다가는 달' 프로그램 풍성

고군산군도 경관 활용

군산시는 '5월 바다가는 달'을 맞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고군산군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해양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프로젝트로, 5월 한 달간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만의 독보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해 체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K-관광심 말도·명도 해양트레킹'이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교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비경을 따라 걷는 코스로, 트레킹 동료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바다가는 달'을 맞아 고군산군도만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먹거리를 널리 알려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월 바다가는 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메달 행진'

전국·국제대회 잇단 입상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청 펜싱팀은 지난 15일부터 전남 해남에서 진행 중인 제55회 회장배전국남녀총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7일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조예원 선수는 결승에서 안산시청 최수빈 선수를 15대14로 제압하며 짜릿한 금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날 최신희·조예원·박주미·김윤서 선수가 팀을 이뤄 출전한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동메달을 추가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익산시청 육상팀도 국제무대에서 남보를 전했다.

육상팀 소속이자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김태희 선수는 이달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싱가포르 오픈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해머던지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태희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꾸준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남호, 교육공무직 연중고용 전환 공약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차별 해소 종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교육청 내 교육복지전담 부서를 신설해 놀람, 돌봄, 급식, 특수교육 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소 방안도 내놴. 급식과 돌봄 등 주요 직종을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120% 정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 기준 인원 초과 시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고용 불안이 제기되는 스포츠·영어회화 강사 등은 무기계약 전환과 직종화 로드맵을 가동해 신분을 보장한다. 이 예비후보는 "급식실, 돌봄실, 행정실 등 학교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인천전서 분위기 반전 노린다

팬들 위한 참여형 이벤트 마련

전북현대모터스FC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전주성)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전북현대는 3승 3무 2패(승점 12점)로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던 중 1무 1패를 기록한 만큼, 이번 홈경기 승리를 통해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올 시즌 승격한 인천은 2승 2무 4패(승점 8점)로 10위에 머물러 있다.

전북현대에는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상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에서는 팬들을 위한 다양

한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

먼저, 슈퍼스타 이승우가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톤 큰 선물을 쏜다.

2026시즌 필드 유니폼을 구매하고 이승우 선수의 이름과 번호 마킹을 원하는 팬들에게 이를 포함해 2025 코리아컵 우승 패치까지 100명을 추첨해 선물한다.

또한 올 시즌 이승우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이미 소유한 팬에게는 오늘 경기 직관을 인증하면 이승우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토북을 선물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현대에는 경기장 내 관람 편의성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정음시>

'정음시장배 전국 주짓수 챔피언십' 성료

정음시 주짓수회가 주최하고 정음시가 후원한 제6회 정음시장배 전국 주짓수 챔피언십이 지난 18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동호인 2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특히 주짓수에 갓 입문한 초심자들을 배려해 '비기너부'를 새롭게 신설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수련 기간

이 6개월 미만인 동호인들도 그동안 땀 흘려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타인의 경기 운영을 지켜보며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대회 관계자들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화합하며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음=김정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ESG 경영 실천'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일부 터 오늘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일원에서 'ESG 인식 내재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전 직원 ESG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조직 문화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재단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한다.

첫째날 임직원들은 진안 마이산 탐사 일대를 탐방하며 전북지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재단은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회용 현수막 대신 기존 행사의 피켓을 재사용하고, 모든 임직원이 개인 텀블러와 물병을 지참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ESG 가치를 업무 현장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들이 ESG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익산농협 농협은행

황임자 찰쌀떡

제대로 알자만난 황임자 찰쌀떡!

익산농협 찰쌀떡

휘핑 생크림 찰쌀떡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생크림 찰쌀떡

황임자 찰쌀떡

초코 찰쌀떡

녹차 찰쌀떡

딸기 찰쌀떡

고구마 찰쌀떡

우크 찰쌀떡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 백토로 119에 위치한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6년 개관 이후 지역 여성 고용을 지원해 온 핵심기관으로,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센터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해 실무 중심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6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구직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세부 과정으로는 △셋 GPT(AI) 활용 마케팅 실무 △AI-SW 코딩강사 양성 △사회복지 실무마스터 양성 △스마트 회계사무원 양성 △실버케어 현장실무자 양성 △샐러리스트·브런치 창업실무자 양성 과정이 있다.

센터는 직업교육훈련에 그치지 않고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61명의 취·창업 연계 성과를 달성했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123개 취약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돌입

정읍시가 재난 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민생 밀집 시설 총 1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핵심 안전 관리 활동이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축·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돼 시설 전반의 안전 상태를 빈틈없이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올해 역시 시설 유형별로 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 관리 활동”이라며 “정읍시는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123개 취약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돌입

정읍시가 재난 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민생 밀집 시설 총 1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핵심 안전 관리 활동이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축·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돼 시설 전반의 안전 상태를 빈틈없이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올해 역시 시설 유형별로 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 관리 활동”이라며 “정읍시는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서 '우리 가족 5월 이야기' 운영

익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기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시민역사기록관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우리 가족 5월 이야기'를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엽서 쓰기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운영된다.

특히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은 '기록관 밤나들이'가 진행된다.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야간 기록관의 색다른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archives.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6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과 추억이 머무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한 경험과 시간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현장행정 지속 강화”

정읍시가 청년 창업 교류 플랫폼을 가동하며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가 전국의 청년 창업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 '숨숨살롱'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숨숨살롱은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익산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지역과 창업,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정읍시 “체류형 관광 거점 만든다”

빅데이터 컨설팅 공모 선정... 메이플랜드 중심 체류 전략 구축

정읍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맞춤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메이플랜드(내장산 문화광장 일원)를 중심으로 한 체류 관광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선다.

이번 공모 사업은 메이플 랜드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이동과 머무는 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끔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추진된다.

내장산 문화광장은 최근 '기적의 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된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며 정읍의 새로운 관광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적극 반영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과 이동 경로, 머무는 시간 등 방대한 대용량 정보(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이용 특성과 소비 형태에 딱 맞는 맞춤형



정읍 메이플랜드 내 '기적의 놀이터' <사진=정읍시>

즐길 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흐름을 짚어보며 체류가 끊기는 구간과 벗어나는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주변 관광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한층 탄탄하게 다질 방침이다.

이번 전문 상담(컨설팅)은 여행의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분석하는 'K-여행 기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해 관광객의 경험 전반을 입체적으로 진단한다. 전국에서 정읍시를 포함해 단 6개 지자체만이 선정된 이번 공모를 통해 시는 관광객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5월부터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방문객 설문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올해 연말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관광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메이플랜드의 방문객 증가 흐름을 발판 삼아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며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정책적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성과로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발품 행정'

행안부 기재부 등 방문 핵심 현안 지원 건의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부처 예산 편성 단계를 맞아 중앙부처를 직접 찾는 등 전방위적 국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시는 20일 김영민 부시장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청을 잇달아 방문해 군산의 미래와 시민 안전을 책임질 핵심 현안 사업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6일에 개최된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실무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찾은 김영민 부시장은 박형태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과 면담을 갖고 △미용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66억원) △조촌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61억원)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사업(345억원)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상습 침수구역 정비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국립 수종고고학 센터 건립(480억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104억원) 등 해양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가적 문화거점 조성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기획예산처 박성주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과급효과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영민 부시장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되는 5월 말까지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전국 청년 창업가 모인다

창업 교류 플랫폼 운영 대화 중심 경험 공유

익산시가 청년 창업 교류 플랫폼을 가동하며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가 전국의 청년 창업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 '숨숨살롱'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숨숨살롱은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익산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지역과 창업,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일에 회차당 15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일회성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깊이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실험형 창업 교류를 지향한다.

첫 회차는 오는 29일 '작은 브랜드의 생존법'을 주제로 열리며, जो니스그로서리 정다수 대표와 카페 선암리 정지환 대표가 참여해 창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고민, 브랜드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youthforest.iksa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로컬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청년창업가들로 구성된 숨숨살롱조합이 수행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타지역 청년 유입과 지역 청년의 창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숨숨살롱은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이 익산에서 직접 만나 연결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라며 “청년들이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장애인 독서관 확대

독서문화 공모 선정

익산시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익산시는 영등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독서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전국 13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영등도서관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영등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5~7월 익산시장에인종합복지과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독서문화 기반을 넓히고,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성과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전국 13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영등도서관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영등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본격화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대

군산시는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중단기 컨설팅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제품인증 △특허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컨설팅의 경우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자문, 경영 개선을 돕는 단기 과정부터 국가과제 사업계획 수립, 사업기획 지원 등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기과정까지 기업별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운영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군산 강소특구 홈페이지(http://www.kunsaninnopolis.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년 연속 최우선 특구로 선정된 군산 강소특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 주기를 맞춤형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형 기술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군산시>

익산시,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

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

익산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기술지원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와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자재 수급 안정과 현장 기술지도 등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벼 벼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있다. 약제는 현재까지 물량 수급

과 가격 변동에는 영향이 없으나, 시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하반기 방제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농업인이 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는 연간 5,000점 규모의 토양 성분비를 비롯해 농약·비료·시설 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월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투입 재배기술과 경영비 절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서 은파지구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주력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 은파지구대는 지난 17일 금융기관 및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했다.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왕래가 잦은 미용동 대학가 주변 금융기관에 진출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피해 예방에 힘썼다.

경찰은 대출사기 및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법 등에 관한 자체 제작한 전단지 배포하고, 보이오피관에 노출된 특히 젊은층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다액을 인출 송금하거나 불만, 초조, 당황하는 보이오피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

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또 대학가에도 진출해 학생들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이 오거나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정주비원금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 등 모두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명준 은파지구대장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전화금융사기는 예방만이 최우선이다. 범인검거에 주력하면서 선제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나날이 변화하는 범죄수법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관광객 발길 '복적' 2(題)

'고창 청보리밭 축제' 대장정 돌입

고창군이 지난 18일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개막을 개최하고 23일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약 20만여 평에 펼쳐진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매년 봄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고창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주민구 고창군의회 구의장 및 구의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은 공음면 어울림나타 오프닝 공연과 축제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보리떡케이크 커팅식으로 기념식을 진행 후 주민들과 함께 보리밭 사잇길 걷기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축제는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주제로, 청보리밭을 직접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관광객은 환급받은 상품권을 고창군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지역 대표 축제다"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상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고창 시티투어버스' 호응 속 운영

고창군이 운영 중인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버스'가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고창 시티투어버스는 △벚꽃축제 연계 코스 △치유관광 코스 △청보리밭 축제 연계 코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 등 총 4개 코스로 운영된다.

특히,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한 코스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코스는 청보리밭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무장읍성, 황윤석 도서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운영되며, 고창만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티투어 이용 승객은 "축제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통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용객은 "청보리밭뿐만 아니라 고창의 여러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알찬 일정이었다"라고 전했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 시티투어버스가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보다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창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및 전화 예약(063-560-2948)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부안군, 양파 종자대 지원 추진

오는 30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양파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종자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1ha당 130만원(1칸당 13만원)이었던 종자대 지원 단가를 1ha당 140만원(1칸당 14만원)으로 인상해 농가의 체감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 시·군 농지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또 개별 농기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 지역 양파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종자대 지원 단가 인상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미디어센터, 오는 24일까지 미디어 교육 교육생 모집

부안미디어센터는 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기 미디어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부터 영상·SNS·AI 기반 콘텐츠 제작까지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기초 과정, 영상 촬영 및 편집, SNS 콘텐츠 제작, AI 보이는 라디오 제작, 미러캔버스를 활용한 디자인 교육, 단편영화 제작 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과정별로 대상과 난이도를 구분해 만 14세 이상 군민 누구나 자신의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수업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기반 교육에서는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루고 SNS 및 디지털 과정에서는 포스터 등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된다.

또 단편영화 제작 과정은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일부 외부 촬영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서의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각 과정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자는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센터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이인철 변호사 초청 강연

23일, 지평선아카데미 특강

김제시는 오는 23일 제73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사례로 배우는 상속과 증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후 지난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가사와 이혼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게 풀이해 온 이인철 변호

사는 MBN '고딩엄빠', JTBC '아는 형남',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2013년 법무부장관 표창,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등 법률 전문성과 대중적 친화력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제444회 감사로 초빙 후 약 10년 만에 다시 김제에 방문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다툼의 이유가 되는 증여·상속 문제를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강연 후에는 김제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보건소, 치매 극복 선도단체 신규 지정

부안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안노인복지센터와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임무협약 및 헌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단체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군에는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실버복지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중·고등학교 등 총 10개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가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치매 인식 개선, 치매 환자 및 가족 불편 해소 등 치매 진화적인 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성황

감자 캐기 체험 '호응'

간척지 감자 최대 생산지인 김제시 광활면에서 열린 '제16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영용)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찾으며 행사장이 쉼 없이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는 감자 따기 시기에 맞춰 마련된 행사로, 대표 프로그램인 '햇감자 캐기 체험'은 현장 접수와 사

전 예약 참가자들의 참여 속에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감자를 수확하며 광활감자의 신선함과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햇감자 캐기 체험장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유채꽃밭과 바람개비 길을 조성해 노란 꽃물결과 다채로운 풍경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임영용 축제추진위원장은 "맑은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광활감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퀵스타트 연장... 투자 기업 인력 확보 총력

김제시는 20일,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제5차 교육과정 참여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3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채용 목표 인원 28명 달성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연장하며 추진된 것으로, 지역 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매칭데이는 퀵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5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1:1 현장면접 △취업 멘토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운영했으며, 대상 기업인 ㈜한우물(대표 최정운)의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 교육생 1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직무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뒤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121명이 면접에 참여해 49명이 교육생으로 선발됐으며, 이 중 22명이 수료하고 1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선발인원 중 10명이상이 교육과정을 거쳐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목표인 수료 31명, 채용 28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물 관계자는 "지방 투자기업은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매칭데이와 직무교육을 거친 인력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기간까지 연장하며 추진한 만큼, 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운영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꽃정원 활성화 방안 논의

스마트정책회의 개최... '주민여가 핵심 공간으로'

전북 고창군이 20일 봄꽃이 만개한 꽃정원에서 스마트정책회의(간부회의)를 열고 "꽃정원을 주민여가 공간과 체류형 관광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주재한 꽃정원 정책회의에는 실·관·과·소장 30명이 참석해 꽃정원 현장을 살피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고창꽃정원은 전역에 정성스레 식재된 21만 송이의 튼림이 일제히 피

어나며 찾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18~19일) 화창한 날씨 속에 수십대의 관광버스와 지역주민들이 찾으며 꽃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창 꽃정원은 5월 중순까지 꽃양귀비, 안개꽃, 금영화, 수레국화 등이 순차적으로 만개하며 화려한 꽃 축제를 펼친다.

고창 꽃정원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농자재 폐기물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던 곳이었다. 지금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꽃정원과 자연마당, 노동저수지를, 서쪽에는 전통예술 체험마을을 하나의 코스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날 정책회의에선 △꽃정원 활성화 방안(인도설치, 휴게편의시설 운영 등) △전통예술체험마을·고창읍성 연계 활성화 방안(철쭉길 걷기대회 개최, 테마오솔길 조성 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비용 없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도시가 주민에게 선사할 수 있는 위안과 치유, 그것이 바로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다"며 "고창 꽃정원을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안전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오는 6월 19일까지 84개소 대상 집중점검

김제시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을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8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소방·전기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인 교량, 국가유산, 경로당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시설물의 균열, 피난 유도등, 변형 및 누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점

검 비중을 높였으며 점검 후에는 위험요인과 보수·보강 방안을 신청인에게 상세히 안내해 행정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고유가 지원금' 지급...민생 '숨통'

소득 하위 70% 1인 최대 60만원
1차 취약계층 우선 2차 확대 지급
카드·상품권 등 지급 방식 선택

완주군이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리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대상자별로 순차적 지급한다.

지급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5월8일까지 우선 지급하며, 2차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확대 지급한다.

다만 1차 대상자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완주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으로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완주사랑상품권(카드)은 'CHAK' 앱을 통해 신청하여 충전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 충전 형태는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완주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의

원, 학원 등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방문 전 해당 매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군은 주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290-4340)를 운영하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면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재정 위기설' 일축...“건전재정 유지”

지방채 8년째 미발행 '채무 제로'
순매입 505억 기금 조기 상환 계획

남원시가 최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순매입상 판결로 불거진 재정 위기설에 대해 남원시 재정 운용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밝히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지난 20일 남원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빚 없는 채무 제로(ZERO)'라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17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이후 8년째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본예산은 1조 583억 원 규모로 채무 없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동안 325건의 공모 사업을 통해 8,0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교부세 추가 확보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왔다.

시는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도비 사업 매칭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해 민선 8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는 45%의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6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8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민선 8기 재정 운용 성

과로 각종 정부 평가에서 인센티브 31억 원을 받았다.

시는 순매입상금 505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하고, 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에 구상권을 청구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하고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공유재산 매각과 투자 유치, 5월부터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체 수입 확충도 추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봄나물 '완판 행진'...참두릅 축제 성료

농특산물 7천만원대 판매 기록
체험·먹거리 소비 확대 견인

순창군 봄철 대표 임산물인 참두릅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순창 참두릅 여행'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참두릅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천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 일대가 연일 활기를 띠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참두릅을 비롯해 고사리·미나리 등 제철 봄나물 판매가 크게 늘어나 참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두릅과 농특산물 판매액만 약 7천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인기 품목은 행사 기간 중 조기 소진되는 등 현장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사진=순창군>

행사장에서는 두릅 장아찌 만들기 체험과 두릅 엑세서리 제작 체험 등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산나물 비빔밥과 두릅전, 두릅튀김 등 봄철 별미 먹거리 장터도 큰 호응을 얻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더불어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해 목재 이용의 필요성 및 목재의 안정성 등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림조합 및 농협중앙회는 수선화, 꽃잔디 등 화분 나눔과 순창 산 농특산물 맛보기 시식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3만 원 이상 참두릅 구매 시 추가 증정 이벤트와 퐁퐁 경품행사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춘향제 기간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시청·도통지구 등 5개소 600여면
정기권 이용자 요금 할인 혜택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를 맞이해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관내 유료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171면), 도통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장4가 주차장(69면), 구 군청 주차장(95면), 관왕묘 옆 주차장(55면) 등 총 5개소이다.

기존 유료공영주차장 정기권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방 기간 7일을 일할 계획으로 요금 할인 혜택이 5월에 적용된다.

또한, 주차장 입구 현수막 게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 공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홍보하고 남원시 교통정보 앱으로 주차 잔여 면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 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의료원-평화회집, 장애인 의료복지 '맞손'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아 협약
입소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전북자치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평화회집(원장 김종열)과 지역 장애인의 의료복지 서비스 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회집 입소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평화회집에서 진행됐으며,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과 평화회집 김종열 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특히 협약식에 앞서 남원의료원 측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평화



<사진=남원의료원>

회집 입소자들을 위한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에 뜻깊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스포츠·체류형 관광 연계 '시너지'

유소년 축구대회 선수단 500명
참두릅축제 체험 프로그램 참여

순창군이 축구대회와 지역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6 순창강천산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팔덕다용도경기장과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 총 6개 구장에서 분산 운영됐으며, 순창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각지에서 48개 팀, 8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가 순창을 방문해 지역에 활기를 더했다.

특히 순창군은 대회 기간 경관과 양지전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순창 참두릅 여행'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18일에는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 500여 명이 축제 현장을 방문해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군은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날 이날 행사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동국도 함께했다. 이동국 선수는 유소년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관광 프로그램 이후 공설운동장에서 이동국 선수와 함께하는 월드컵 기념 포인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약 5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봉도서관, 개관 앞두고 주민 사전 참여 활동

서가 구성 등 파일럿 프로그램

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이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고운 첫 걸음, 도서관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전 참여형 시범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도서관 개관을 주민과 함께 준비한다는 취지로 기획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활동은 성인 대상 사전 참여 과정인 '고운삼봉, 먼저 걷다', 주민이 직접 서가를 구성하는 '내가 채우는 첫 책장', 희망 도서를 미리 대출해보는 '특별 첫 대출', 유아·어린이 대상 인형극 공연 '책 속 친구들, 첫 만남'

등으로 꾸려진다.

성인 대상 활동은 5월 중 3회 진행하며 서가 참여 및 도서 신청 과정은 4-6월 동안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은 4월과 5월 각각 1회씩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완주 군립 도서관 누리집(lib.wanju.go.kr) 게시물의 홍보물 내 정보마루(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 면적 2,969㎡)로 자료실, 공동 육아 나눔터, 민원센터, 청소년 존,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으며,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공립미술관, 전북도 1종 미술관 공식 등록 완료

개관 10년 만 법적 공신력 확보

순창군은 순창공립미술관(분관·기획전시실)이 전북특별자치도 1종 미술관 등록 심의를 최종 통과해 공립 미술관으로서의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룬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최종 등록까지 순창공립미술관의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

순창공립미술관은 '누구나 쉽게 찾는 문화'라는 비전을 목표로 순창읍 본관(구 옥천공립미술관, 남계로 81)

과 적성면 기획전시실(구 섬진강미술관, 평남길 113)로 구성돼 있다. 읍내권과 먼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전반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1종 공립미술관 등록을 계기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문화 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전시와 전문적인 교육·학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술관 평가인 증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등록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전시 협력과 다양한 예술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맞이 시가지 녹지 정비 '속도'

남원시가 다가오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선사하고자 시가지 녹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축제 기간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 구역은 관광객 밀집 지역인 광한루원 주변과 요전 일원을 포함한 시가지 전역이며, 작업 규모는 제초 53,256㎡, 예초 82,236㎡에 달한다.

특히 남원시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 튀김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구간에 안전 보호망을 설치했다. 또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춘향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며, “녹지대를 빈틈없이 정비해 남원을 찾는 모든 분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약사회, 취약계층 아동 구충제 600정 후원

완주군약사회(회장 김행아)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해 구충제 600정을 후원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구충제 후원은 드림스타트 '장터튼 면역력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하기 쉬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는 전체 가정에 구충제를 전달하고, 교육 위생 관리 및 생활환경 청결 등 위생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완주군약사회 소속 봉동종로약국(봉동읍 소재, 대표 김행아)에서는 면역력 증진 및 성장 발달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유산균의 일부를 후원했으며, 건강 취약 아동을 우선 선별하여 유산균을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진 아동친화회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모악산서 드론 활용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완주군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지난 17일 상춘객이 몰리는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완주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드론을 투입해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중 감시를 실시했으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 화재 예방 수칙과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했다.

군은 봄철 특유의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맞물릴 경우, 사소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아 산림복지과장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산불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가정의학과·피부과 외래 진료 실시

임실군보건의료원은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 외래 진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던 진료 과목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의학과·피부과 전문의 재채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및 전반적 증상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피부질환 관리 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서울대병원과 함께 의료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8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의료봉사단이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2021년 양 기관 간 체결된 의료사회공헌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건강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건강 검진과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2024년 첫 무료 순회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됐다. 이날 진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의료봉사단과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의료취약계층 및 일반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내과, 영상의학과, 안과, 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총 8개 분야 전문의가 참여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가 진행됐다. 진료 결과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대상자 중 유소견자는 정밀검사 및 2차 진료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병해충 사전 차단 나서

진안군은 본격적인 벼 육묘 시기를 앞두고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벼 재배면적 1,600ha를 대상으로 총 3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모든 벼 재배 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육묘 단계에서 약제를 한 번만 처리해도 초기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방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방제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되는 약제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혼합된 형태로, 파종 시 살포하거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면 된다. 농가는 내달 31일까지 원하는 약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제별 사용 기준과 처리 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조제와 연속 사용하거나 모내기가 지연될 경우 초기 생육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TF팀 가동 신속 집행 총력 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장수군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예산편성부터 현장 접수 창구 마련까지 차질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3월 30일 기

준 장수군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하위 70% 일반 주민 25만원이다. 군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신청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신청(기초·차상위·한부모)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소득 하위 70%)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나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되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로 인해 4월 30일 목요일에는 끝자리 4-9-5-0 주민이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장수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본격화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무주군이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일에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과정'을 개강했으며, 29일까지 2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산후회 회복 돕기, △신생아 돌봄 기술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수료 후에는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와 연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여성들의 전문 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맞춤형 직업훈련이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

<사진=무주군>

어져 지역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교육-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무주형 여성 일자리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 △생활 목공반, △스마트폰 사진

지도사 양성 등 지역 수요가 높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이 담긴 수시 평가와 상담회를 기반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2026 임실N팻스타, 다채로운 체험·불거리 풍성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오감만족 축제 기대

임실군이 1500만 반려인을 위한 대표 반려동물 축제 '2026 임실N팻스타'는 화려한 볼거리와 더불어, 역대 축제 중 가장 풍성하고 다채로운 먹거리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를 마쳤다. 군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에서 제41회 의견문 화제와 연계한 '2026 임실N팻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수의견 설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성과 현대 반려문화를 결합한 복합형 문화축제로 수려한 행사장 경관조성, 프로그램 및 먹거리들 분야에서 대폭 업그레이드 된 구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축제공간을 전면 재정비해 제

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드넓은 잔디광장과 함께 1,000여개의 수목화분, 약1.3ha 규모의 오수천변 꽃양귀비 군락을 조성해 봄꽃이 어우러진 감성공간을 연출했다. 또한, 의견관광지 전역을 활용한 입체적 동선 설계로 관람객 분산효과를 높이고,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축제환경을 제공한다. 축제 프로그램은 '참여·체험·전문성'을 키워드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FCI(세계견연맹) 국제 어질리티 대회'다. 사람과 반려견이 한 팀이 되어 역동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며 호흡을 맞추는 이 대회는, 관람객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불거리를 선사하며 오수가 '반려동물 스포츠의 성지'임을 입증할 전망이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오수 마스터즈 데이'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대표급 훈련사들이 펼치는 정교한 시범을 통해 반려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올바른 훈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더한 '원광대 RISE 사업단 연계 미용대회'도 개최된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한방센터, 행동교정 및 훈련체험, 인신표·목줄만들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돼 반려가족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심민군수는 "2026 임실N팻스타는 오수를 세계적인 반려동물 스포츠의 성지로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FCI 국제 어질리티 대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와 임실 한우·치즈를 활용한 역대급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오감 만족의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귀농학교 제34기 교육생 모집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준비부터 정착까지 체계적 교육

장수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기 정착인을 대상으로 '장수귀농학교 제34기' 교육생을 2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와 농촌 생활 이해,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이며 장수군으로 귀농·귀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과 귀농·귀촌 5년 이내인 자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박람회 현장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농업연구소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귀농귀촌 정책 설명 △귀농 설계 및 마인드 교육 △농업 경영체

사례 학습 △현장 농가 체험 △간담회 및 분임토론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일경험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이 장수군 정착의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안성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확대

무주군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무주읍에 이어 올해는 안성면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성면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안성보건지소, 100세 치과 의원, 중앙약국, 안성고등학교, 무주 9987노인복지센터,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성면 자율방범대, 안성면 의용소방대 등 안성면 총 9개 기관·단체가 합심해 자살 위험 신호를 살피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기 발굴,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위험 수단 차단 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읍면 단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접점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자살 고위험군을 더욱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시설원에 농가 맞춤형 자재 지원 확대

비료·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시설원에 분야 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에 부담이 커진 비료, 상토, 묘목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화훼류 및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7개 핵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화훼류 재배 지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 딸기 육묘 지원, 토마토 육묘 지원, 오이 육

묘 지원 등이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양액 비료와 우량 묘목을 신속히 공급 완료하여 농업인들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을 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수 자재를 사전에 확보해줌으로써 임실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우수한 품질의 비료와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전주병원 이동검진 버스로 진행

무주군이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증진을 위해 21일까지 이틀간 근골격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전주병원 검진 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나이를 확대해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80세 무주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348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적상면 오색단풍이야기센터에서 무주와 적상, 안성, 부남면 지역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밀도,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낙상 예방 골절, △심혈관계질환 등 4개 항목에 관한 예방 교육도 병행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여성농업인들은 "개인적으로 검사받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데 찾아와서 검사와 필요한 교육을 해줘서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라며 "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앞으로도 검진 잘 받고 예방 수칙도 꼭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1일에는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이 이뤄지며 무풍과 설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미리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때는 해당 병원에 직접 가셔도 된다"라며 "검진비 부담 거의 없이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검진을 받을 기회인 만큼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성장기 아동 맞춤형 예방·관리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20일부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증가하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 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안심학교로 선

정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아선별 △환아 관리 △교내 관리 △교육 이수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 △피부관리 및 환경관리 방법 안내 △보호자 대상 건강상담 등을 실시해 학생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승무 원장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환으로 인한 학습 저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 흥덕면지사협, 어르신들께 정성 담은 빵 1000개 전달

고창군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류정선, 민간위원장 서중수)는 지난 17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관내 경로당 51개소에 빵 1000개를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사랑빵! 행복빵!' 사업의 일환으로 지사협 위원들의 자체 예산으로 마련되어 더욱 뜻깊게 추진됐다.

전달된 빵은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정성과 온기를 더해 의미를 더했다. 지사협 위원들은 각 경로당을 방문해 빵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류정선 공공위원장은 "정성껏 만든 빵을 어르신들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준규 기자



익산 빵집오빠 금마점,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구·전영선)는 20일 '빵집오빠 금마점(대표 나해경)'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빵집오빠 금마점'은 1,000원 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 다양하고 신선한 빵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해경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영선 금마면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마면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18일 인후청소년센터 집결 "청소년 미래인 현재시민" 만 16세 참정권 보장 촉구

지난 18일 오후 1시,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주권 실현을 위한 '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전주를 비롯해 군산, 순창, 장수, 진안 등 전북 각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가오는 선거에 맞춰 청소년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운동본부는 "전북 청소년 1만 모의투표 참여 선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비유권자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모의투표 운동을 전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청소년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민'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만 18세인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정권 확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공식 출범 행사 이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참정권 워크숍'과 '청소년 모의투표 교육'이 이어졌다.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 청소년들이 느끼는 일상의 문제들을 정책 의제로 발굴하는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교육에서는 모의투표의 취지와 운영 방법, 선거법 관련 지식 등을 학습하며 단순한 투표 체험을 넘어 정치적 효



능감을 갖춘 선거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졌다.

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북 전역의 청소년들이 지역과 나이의 장벽을 넘어 연대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배운 교육과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 현장에서 청소년 1만 명의 참여를 끌어내어, 청소년의 표심이 전북의 변화를 만드는 거대한 울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북 지역 청소년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정책 제안 및 후보자 정책 질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딸기잼 만들어 장학금 마련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 이하 협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춘향골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사회 미래인재 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여성 리더들이 한데 모여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우리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정성껏 만들어진 딸기잼은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들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기탁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아나바다 캠페인' 진행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절감 실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민호)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한 2026년 '생활 속 자원순환 함께 만들어가요' 아나바다 캠페인을 7개 읍·면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라는 생활 실천을 기반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여 탄소 배출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군민들의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자원순환 공간을 마련하여 자에게 필요 없는 물품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을 알리고자 장수군 7개 읍·면 사무소를 생활 속 자원순환 거점센터로 활용하여 지난 13일부터 장수읍 사무소를 시작으로 7개 읍·면 사무소 내와 한국농어촌공사사무진장지사, 케이위터기술(주)동화권사업소, 장수교육지원청에도 재활용 가능한 의류수거함을 설치 운영한다.

기관 및 7개 읍·면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함은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수거된 의류들은 장수군자원봉사센터 "행복한 가게"(중고의류매장)에 비치 및 5월 30일 계



남면 만남의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 시 재활용되어 수익금 전액은 연말 장수군

에향교육진흥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 개정동 다르마요가원, 착한가게 21호점 가입

군산시 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다르마요가원(대표 함경화)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조춘동에 소재한 다르마요가원은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운영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요가원이다.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받은 함경화대표는 "다르마요가원을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돌려드리고자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근석 민간위원장은 감사를 전하며 "다르마요가원의 착한가게 가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같은 따뜻한 실천이 이어져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순 개정동장도 "착한가게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게 확산을 통해 나눔이 일상이 되는 개정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전달

어려운 환경 속 학업 매진 작은 보탬 되고자 지원 결정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임광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송동면 학생 1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빵튀기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원들은 지역 행사 및 상설 판매 활동을 통해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사진=남원시>

/남원=정하복 기자

산악사고 예방 수칙

- 자신의체력에 맞는코스 선택 하기
- 낙엽 및 낙석 주의하기
-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 일몰 2시간 전 하산하기
- 산악 위치 표지판 수시로 확인하기

〈一事一言〉



돛구장 광풍, 혈세는 눈먼 돈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일단 짓고 보자'식 토건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한 때 전국을 뒤덮었던 '출렁다리 경쟁'이 이번에는 수천억 원대 '돛구장 건설'로 번졌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초대형 시설 공약이 난무하는 기형적 풍경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돛구장 건설을 내건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를 합쳐 9곳에 이른다. 총청권은 물론 부산과 전북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퉛 북한 돛구장을 약속했고, 화성·파주·광명 등 기초지자체까지 가세했다.

현재 국내에 돛구장은 고척스카이돛단 한 곳뿐이다. 그마저도 수도권이라는 압도적 수위를 기반으로 겨우 유지되는 시설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전국 곳곳에 돛구장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함을 넘어 위험하다.

출렁다리의 전철은 이미 경고를 던지고 있다. 2010년 110개에 불과하던 출렁다리는 10여 년 만에 259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다수 시설이 개장 초기 반짝

효과를 지나자 관광객 급감과 안전 문제로 외면받고 있다. 논산 탐정호 출렁다리는 3년간 유지관리비로만 22억 원이 들어갔고,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관광객이 1년 새 30% 줄었다. '적은 비용으로 생색내기 좋다'는 이유로 남발된 공약이 결국 지방재정을 졸먹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문제는 돛구장이 이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척돛 단립에만 2,700억 원이 들었다. 현재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 4,000억~5,00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추가된다. 안정적인 수요와 상시 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돛구장은 건설과 동시에 '대형 적자 구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K-팝 공연'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수천억 원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를 향한 기만이다.

이미 통계는 경고하고 있다. 건립비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532곳 가운데 87%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한다. 세종시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교부세

를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했고, 제주 역시 적자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 화려한 외형 뒤에 숨은 현실은 '재정의 블랙홀'이다. 문제는 그 부담이 결국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육, 노인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가장 절실한 분야가 먼저 희생된다.

선심성 공약은 달콤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지역의 미래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 검증되지 않은 타당성, 사후 운영 계획 없는 전시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건립 단계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재정 투자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공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는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일이다. 수천억 원짜리 돛구장이 텅 빈 채 방치될 때, 그 빈자리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매워진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토건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화려한 공약 뒤에 숨은 텅 빈 재정과 민생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혈세는 치적을 장식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기고

중동 상황 속, 농자재 수급 안정에 총력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가격 급등이나 품귀 현상을 언급하는 보도도 이어져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농업용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높음에도 대체 수입선인 동남아의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63.6% 가량 상승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현재 농자재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농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료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용·판매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연초에 결정된 수준(871천원/

톤)을 유지하고 있다. 비료 전체 물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향후 가격 인상 시에도 추경(115억)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농업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고 감안 시 7월 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월별 구매량 제한을 통해 가수량 및 사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일부 민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있으나,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철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공급이 관리되고 있다.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밭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봄철 영농 수요분이 기 확보된 상황이며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농약 또한 올해 사용할 원재 소요량의 90% 이상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고, 중동 수입 비중이(이스라엘, 전체 0.3%) 낮아 중동전쟁에 따른 농약 가격 변동 요인은 없다.

정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자재 가격과 재고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실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의 적정 시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시비 기준과 비료처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과 토양에 맞는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퇴·액비활용 경축순환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다. 적정 시비는 경영비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림 없는 영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필요에 맞는 적정량의 농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사재기 등 과도한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적정 시비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한종현

문 화 재 열 전

사설

공천 시스템 붕괴, 민주당의 자업자득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과정이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후보를 낚아채는 정책 행사장에 세워 사진을 찍게 하고, 불과 몇 시간 뒤 야밤에 '자격 박탈'을 통보하는 행태는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전북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김솔지 전북도 의원은 지난 16일 밤 부적격 판정을 받아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이용한 '밥값 대납 의혹'이 그 사유다. 이미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일 오후까지 해당 후보를 '정책 연대' 자리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엇박자 공천'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공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대응일 뿐이다.

더구나 김관영 지사 제명 사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도덕성 논란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청년 정치' 구호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낡은 정치 관행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특히 식사비 수혜자로 지목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은 사태를 개인 일탈 수준으로 축소할 수 없게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특정 인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모든 사안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는 신뢰다. 낮에는 원탁을 외치고 밤에는 퇴출을 선언하는 이중적 행태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출속 공전과 검증 실패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무너진 정치 도덕성을 바로 세울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전북도민이 느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깊은 배신감이다.

▲오늘의시

윤사월 /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엇고고 있다



문 화 재 열 전



강천사오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탑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순창군 강천산길 270 (팔덕면, 강천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일련)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2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제96회 남원 춘향제 “전 세계를 품을 준비 마쳤다”

수도권·호남권 타겟 마케팅 강화

‘모두를 위한 축제(Festival for All)’ 가치 실현

남원시가 전 국민이 제96회 춘향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홍보 전략부터 편의시설까지 축제 전반을 재점검하며 방문객 준비를 마쳤다.

■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스마트 홍보 전략
시는 우선 수도권의 핵심 거점인 용산역과 강남역 센트럴시티를 비롯해 호남권의 관문인 광주 유스퀘어, 전주·목포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형 옥외광고를 배치하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광주 월드컵 롯데아울렛과 전주 지역 주요 대학교 현장에서는 시민 밀착형 프로모션을

전개해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홍보 전략도 눈에 띈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와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티맵(T-MAP) 음성 광고를 활용해 남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실시간 축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광주와 전주 등 배후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축제의 뛰어난 접근성을 강조했다.

■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적 인프라’ 확충
올해 춘향제는 영유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축제

(Festival for All)’를 지향한다. 요천변 패밀리 존(ZONE)에는 역대급 규모의 ‘메가 에어바운서’를 설치해 어린이 전용 놀이터를 마련했으며, 드론 조종 및 AI 기술 체험 부스를 운영해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전통 보조기기 공유 프로그램인 ‘휠체어와 경량 휠체어 ‘미러쥬’를 도입해 축제장 전역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모차 대여소, 수유실, 기저귀 교체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고 고령층 전용 휴식 공간을 확충해 포용적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위해 3,148면 확보
방문객의 최대 불편 사항인 교통 문제 해결에도 만전을 기했다. 종합스포츠타운과 요천변 일대 등 10개소에 3,148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남원역과 주요 거점을 잇는 4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

차 간격을 20분 이내로 단축해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캠핑족을 위한 편의도 강화했다. 합파우 소리 체험관 등 3개소에 223대 규모의 임시 차박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잔여석 확인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실시간 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대기의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 글로벌 콘텐츠와 혁신적인 미식 경험
축제 프로그램은 기품, 절기, 사랑, 전통이라는 4가지 테마 아래 7일간의 매혹적인 여행으로 꾸며진다. ‘제96회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는 작년에 이어 국적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미를 알린다.

6,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1.6km 구간의 춘향 카니발은 압도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기부 천사 선과 함께하는 ‘사랑나눔런’은 축제에 나눔의 가치를 더한다. 96년 역사의 국악대전과

MZ세대의 언어로 전통을 재해석한 ‘뱀소리 배틀’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먹거리는 더본코리아(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꾀했다. 남원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지역 축제의 고질적 문제인 바가지 요금을 근절했다. 28개의 먹거리 부스와 야간의 낭만을 더할 ‘월광포차’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며, 축제 최초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의 이정표를 세울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춘향제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과 역대급 콘텐츠를 모두 갖췄다”며, “홍보부터 인프라까지 빈틈없이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객이 남원의 맛과 맛을 불편함 없이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축제 2026

2026. 4.11(토) ~ 5.10(일)

모두의 동행,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지역축제 연계 행사

행사명	일정	장소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4.18(토)~5.10(수)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
제9회 익산백제 국가유산야행	4.24(금)~4.26(일)	익산백제왕궁 왕궁리유적 일원
2026 전주 아팝나무축제	4.25(토)~5.3(일)	전주 팔복동 아팝나무 철길, 팔복예술공장 일원
제96회 남원 춘향제	4.30(목)~5.6(수)	남원시 광한루 및 요천 일원
2026 익산 서동축제	5.1(금)~5.3(일)	익산 신흥근린공원 및 중앙체육공원 일원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페스티벌	5.1(금)~5.3(일)	오수의견공원 및 의견관광지 일원
익산구시장 동행축제 온라인할인대전	5.1(금)~5.10(수)	익산구시장 일원